



오륙도 칼럼



박양근

가을이 따사롭다. 다정하리만큼 따사롭다. 누구는 가을은 인정머리 없는 겨울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늘의 청기와 땅의 온기가 그지없이 조화된 계절이 가을이다. 여름을 달래는 부드러운 마음어릴까. 더군다나 울어들은 한겨울 폭설의 폭심을 부렸다. 그런 시련을 묵묵히 견뎌온 시간을 생각하면 가을이 쌀쌀맞은 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가을이 유난히 반갑다. 찬

하고 싶고 마음을 주고 싶다. 손이라도 있으면 살며시 잡고 말이라도 걸고 싶다. 발로 걷는다면 조용히 뒤따르고 싶다. 가을은 다른 계절이 갖지 못한 은근한 빛과 잔잔한 음성을 지닌 여인 같기 때문이다.

가을에 비하여 봄은 아리따운 아가씨 같다고 한다. 울긋불긋한 겉다리 색깔로 사람을 혹하는 게 봄의 색깔이다. 생갈 있는 노랑과 빨갛고 하얀 꽃잎이 잿빛 겨울 덕분에 가을을 더 받들 뿐이다. 그런데 봄에는 마음을 줄 만한 소리가 없다. 판소리처럼 휘어지는 풀벌레 소리도, 잘 익은 밤과 감이 툭 떨어지는 소리도 없다. 여름에는 소리가 있긴 있다. 독살스럽게 우는 매미와 우당탕 흘러내리는 흙탕물이 귀를 먹먹하게 하지만 마음을 빼앗는 속 깊은 빛은 없다. 사방천

지 오직 짙푸른 녹음, 녹음, 녹음 뿐이다. 아파트 단지를 빙 두른 산과 공원도 푸른 도료를 마구 발라 놓은 유희처럼 보인다. 천재시인 이상은 여름철 녹음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권태를 느꼈다고 한다. 나도 요즈음에는 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가을은 그 하전했던 마음을 빛과 소리로 채워준다. 가을날 만나는 빛은 요란스럽거나 축은하지 않고 성숙한 여인의 뒷모습을 떠올려준다. 이기대 해변 길을 걷다가 만난 자주색 구절초며 갯 뿔어진 낙엽을 주우면 단색 여름에게 빼앗긴 마음을 비로소 되찾는 기분이 든다.

음력 9월 중양절에 다상에 놓인 국화화서의 노란 꽃망울은 어떤가. 미국의 19세기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돌의 색깔을 '우주가 일하

준 자연의 갈색 옷'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 가을철 돌을 보고 그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가을을 빼면 어느 계절을 따갈 좋은 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산과 들에는 울림이 퍼져간다. 가을소리를 듣고 싶으면 황령산 언덕으로 간다. 어둠이 스며오는 차장을 열면 빨간 딱갈나무가 조곤대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무엇보다 풀벌레가 끼어있지 않은 채 성대만으로 빛어내는 소리는 폭염을 물리치는 자력병의 가능자 같다. 덩달아 달빛이 잘랄 거리며 흐르고 검은 흙덩이도 부스스 기지개를 켜다. 소리가 소리를 부르는 가을에 장막에 사각거리는 처맛단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가을이 짧다. 부산의 가을은

겨울보다 더 짧다. 바란다면 바바리코트 위에 걸친 명주 스카프만큼이나 길면 좋겠다. 가을이 깊수록 여름이 빨리 떠나고 겨울은 늦게 오지 않겠는가. 진정 가을이 여인이라면,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여인이라면 빨리 오라고 휴대전화를 걸 것이고 오래 머무르라고 메일을 보낼 것이다. 그러한 가을을 오래도록 만나고 싶다.

자연의 빛과 소리만으로 나는 가을을 온전하게 즐길 수 없다. 산빛과 잎 색과 벌레 소리와 낙엽이 어께에 떨어진들 가을을 흔쾌히 맞이하지 못한다.

가을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빛과 소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니 9월의 한복판에는 중추절의 만물이 뜬다. 그 달이 뜨면 모두가 헤어져 살았던 가족을 만나러 오간다.

선물을 포장하는 소리, 새 옷 갈아입는 소리, 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소리, 조상의 묘 앞에서 절하는 소리……. 그리고 마을 앞 동구 밖까지 나와 그 소리를 맞이들이는 늙은 부모의 환한 얼굴, 얼굴빛, 가을은 정녕 사람이 내는 소리와 빛이 있어 풍성하고 넉넉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나는 가을에 책을 읽는다면 동화를 읽고 싶다. 봄에는 시를 읽고 여름에는 소설을 펼치고 겨울에 수필을 읽는다면 가을에는 동화가 제격이다.

동화에서는 호박이 황금마차로 바뀌고 쏘아진 우유가 은빛 목걸이가 된다. 동화의 나라에서는 가을 명절을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반디를 행복의 전령으로 만들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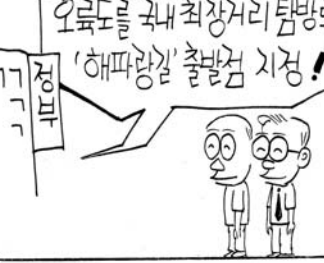
한해의 종간을 넘겨 가을이 있는 이유는 그 넉넉함 때문이다. 내가 바바리코트와 명주 머플러를 걸친 여인을 지켜본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가을이 있어 겨울과 봄과 여름이 그나마 분수를 지킨다.

부경대 교수·수필가



&lt;176&gt;

채 규중



종업원 자신들을 위해 그토록 요란스럽게 울려대는 노래를 마구잡이식으로 틀어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재발 할인마트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상품을 구입하도록 시끄러운 음악을 자제하고 틀려다도 음악을 낮게 틀었으면 한다.

우향화(문현3동)



선용익

1000자 지혜

76

## 누워서 침 빨기

물건과 달리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물론 보고 판단하는 사람의 잣대나 기준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판단하는 사람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지면 그 차이 역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개성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장점이 있다. 보잘 것 없는 물건도 쓰임이 있듯이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도 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도 보잘 것 없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별 차이 없는데 그것을 비교하다가 큰 코를 다치는 수가 있다.

공자(孔子)가 송(宋)나라에 갔을 때 이야기다. 자어라는 사람이 송나라의 대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대강께서는 공자를 아세요? 그 분은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훌륭한 분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아니, 뵈 적이 없네.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한 번 만나보고 싶군.”

자어는 돌아가 공자에게 송나라 대신이 뵈고 싶어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자도 가까이 자어의 정을 들어 대신과 만났다. 두 사

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자가 돌아간 뒤에 자어가 대신을 찾아가 공자를 만나보니 어떠하더냐고 물었다.

“자네 말마따나 정말로 훌륭한 분이었어. 그런데 공자를 만난 뒤 자네를 보니 자네는 마치 벼룩이나 이처럼 보잘 것 없이 보이네군.”

잠시 후, 대신이 공자를 임금님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하자, 자어는 신국이 웃으며 말했다.

“그만 두시지요.”

“왜?”

자어는 계속 이상아릇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임금님이 공자를 만나보시면, 임금님은 대강님을 벼룩이나 이처럼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남을 폄하하거나 욕을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자기노(自己滿)를 먹는 꼴이며, 제 눈 뚱에 주저앉는 꼴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다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단점은 묻어주고 장점만 내세워주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회도 정말 밝아지지 않을까.

번역문화가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확충을

얼마 전부터 대연동 부산은행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잘 이용하고 있다.

특히 퇴행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의족을 휠산 편해졌다며 모두들 반기는 듯 하다.

또 경성대 부근에도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어르신들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지하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해 주길 바란다.

황의숙(대연3동)

### 재활용품의 변신 놀라워

백운포 체육공원의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우리에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오래된 매트리스, 작동이 멈춰버

###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강화

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대연2동 주재상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연재해의 양상이 점차 빈번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재난상황 예견 및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륙도산작장과 이기대·백운포 해안가, 동천변, 용호만 매립지 등 해안가 재난위험 지역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포 체육공원 입구에

재난문자 전광판을 이용 재난관련 공지사항 및 기상특보상황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크로샷(문자·음성 전송)을 활용 통상, 지역 자율방재단, 취약지 주민에게 재해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강화로 재난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하숙·재난안전과>

###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퍼시지 광고전단지를 보고 놀랐다고 단속을 해달라는 호응2동 최남이

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퍼시지에 뿌려진 광고전단 단속 요청건에 대해 우리구의 아름다운 명소인 이기대 및 백운포 일대에 현장 순찰 단속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불법광고물(전단, 배너 등)현장정비반이 지속적인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607-46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숙경·도시관리과>

## 부산남구문화원 제10기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기간: 2010년 10월4일(월)~12월24일(금) ⇒ 공휴일 제외  
■문 의: ☎607-6359, 624-1333

강좌종류	강좌명	강사명	강의시간	준비사항
전통문화	한국문예(초급)	황지인	월.수 13:30~14:30	반선
	한국문예(중급)	황지인	월.수 14:30~15:30	반선
	한국문예(고급)	황지인	월.수 15:30~16:30	반선
	다도예예절	박정희	화.목 10:30~11:30	
	가야금교실(초급)	양태숙	수.목 10:00~11:00	가야금대여비 101,000원
생활문화	가야금교실(중급)	양태숙	수.목 11:05~12:05	
	민요판소리	양태숙	수.목 12:10~13:10	프린트물
	기초한문서예	박재광	금.일 13:00~15:00	도구비(광판, 문진, 붓, 베풀, 먹, 종이) 별도
	시문자·문인화	박재광	금.일 15:00~17:00	도구비(광판, 문진, 붓, 베풀, 먹, 종이) 별도
	노래교실	조상영	금.일 14:00~16:00	교재비 별도
생물문화	화물스피치	김달현	화.목 14:00~16:00	프린트물
	노어	류정희	화.목 10:00~11:30	프린트물
	시주명리화	송숙연	수.목 15:00~16:30	교재비 별도
	천연비누와 화장품만들기	박정희	목.토 10:00~12:00	재료비 별도
	시창작교실(초급)	최원희	화.목 13:30~12:00	
문학문화	시창작교실(중급)	최원희	화.목 12:10~13:40	
	수제화(1반)	권용호	목.토 10:00~13:00	재료비 별도
	수제화(2반)	권용호	금.일 10:00~13:00	재료비 별도
	댄스스포츠(고급)	박학순	월.금 10:00~11:00	
	댄스스포츠(중급)	박학순	월.금 11:05~12:05	
연예강좌	댄스스포츠(초급)	박학순	월.금 12:10~13:10	
	사진교실(초급)	주철민	목.토 09:50~11:50	디지털카메라
	사진교실(중급)	주철민	금.일 10:00~12:00	디지털카메라
	태극권	노혜원	화.목 11:00~12:00	심내화
	통기타(초급)	황승환	화.목 13:30~15:30	통기타, 별도 지참
초등학생교	통기타(중급)	황승환	화.목 15:30~17:30	통기타, 별도 지참
	오카리나(초급)	이귀숙	수.목 10:00~12:00	악기비 별도
	오카리나(중급)	이귀숙	수.목 13:00~15:00	악기비 별도
	자세교정을 위한 팔레스트	윤신아	월.수 12:00~13:00	
	영어교실(기초)	김재연	화.목 12:00~13:00	교재비 별도
초등학생교	영어교실(중급)	김재연	화.목 13:00~14:00	교재비 별도
	영어교실(고급)	김재연	화.목 14:00~15:00	교재비 별도
	영어교실(초급)	김재연	화.목 15:00~16:00	교재비 별도
	영어교실(중급)	이은향	화.목 16:00~17:00	교재비 별도
	영어교실(고급)	이은향	화.목 16:00~17:00	교재비 별도
초등학생교	초등영어논술(국사)	김재현	화.목 16:00~18:00	교재비 별도
	한국사(초·중·고)	한진희	화.목 16:00~18:00	한국사(초·중·고)교재비 별도
	한국사(초·중·고)	한진희	화.목 16:00~18:00	한국사(초·중·고)교재비 별도
	한국사(초·중·고)	한진희	화.목 16:00~18:00	한국사(초·중·고)교재비 별도
	한국사(초·중·고)	한진희	화.목 16:00~18:00	한국사(초·중·고)교재비 별도

### ■ 살며 생각하며

## 만월의 눈짓



김정화

바야흐로 추석이다. 무더위가 무너지고 매미 소리도 기가 꺾인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물란을 흔들며 나무도 색색의 과일들을 떨어낸다.

사람들은 바쁘다. 제각각 속뜻을 숨기기 바쁘다. 추석이 가장 설레는 사람은 자신을 기다리는 노인들이다. 생김치를 담그고, 묵을 쑤고, 식혜를 끓이느라 시간을 쪼갬다. 손자 손녀들에게 줄 뽕뽕한 용돈도 준비해 놓는다.

추석 중추군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하는 머느리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하지만, 가정이 된 아들의 마음은 한결 가볍다. 귀성길 도로에서 막대한 교통대란도 고향 길을 찾는 설렘 앞에서는 종이호

랑이에 불과하다. 아내와 자식을 좌우에 거느리고 옛집에 들어서면 서 “어무이, 우리 왔어요.” 할 때는 어깨에 힘이 그냥 들어간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추석이 시큰둥하다. 고향이 없고 볼 친구가 없다. 그나마 마음 가는 곳이 있다면 용돈이다. 당연히 추석은 가품을 익히는 것보다 용돈 모으는 날로 기억된다.

온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게 도 추석 연휴 때는 불안해진다. 팟시터도 떠나고, 자택방식기도 하루를 넘기면 불편하다. 애견센터나 동물병원에 투숙하면 되겠으나, 절창에 갇혀 며칠을 지내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 잘 사는 마님 덕 애완견은 애견호텔을 기대하지만 아홉째 집 보통 개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관광명소와 공화 대학살은 해외 탈출객으로 더욱 복잡해진다. 천상에 계시던 조상님들도 바빠졌다. 후손들을 대면하려면 눈치껏 움직여야 한다. 호텔이나 펜션의 맞춤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하고, 피자나 콜라 등 서양 푸드에도 길들여져야 한다. 그나마 차례지방에 본

수필가·본지기자

### ■ 나의 생각

## 등산 중 ‘야호’ 문화를 고치자



김상태

우리가 산에 올라 무심코 지르는 ‘야호’ 소리가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졌다고 하지만 야호도 산에 올라 큰소리를 내어 ‘야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나서 야호문화를 근절하는 데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야호’는 독일 알프스 지대에서 쓰던 ‘johoo’란 외성어가 어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20세기 들어 ‘야호’란 구호가 들어와 등산객 사이에 유행하면서 마치 호연지기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긴급 상황이 발생해 구조를 요청하거나 동료들에게 자신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우 608-701)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원고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